

# 55년 '광주 시민의 발' 삼양버스 역사 속으로

## 경영난으로 순천교통에 매각 이름 바뀌

광주 시민의 발 역할을 해오던 삼양 버스가 55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8일 광주시 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순천의 버스업체인 순천교통이 지난 1일 삼양 버스를 인수한 뒤 '을로 운수'로 이름을 바꿔 운행하고 있다. 순천 교통은 지난달 20일 직원과 체불 임금, 부채 등 100% 승계에 합의해 삼양 버스를 최종 인수했다.

순천 교통은 이달 안으로 퇴직금과 상여금을 포함한 체불 임금 21억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또 운전 기사 309명 등 직원 373명도 모두 정상 근무 중이다.

삼양 버스는 수년 전부터 승객감소

와 운영비 증가에 따른 자금난으로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려 왔다.

하지만 2006년 광주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으로 다소 여유를 찾은 듯 했으나 근본적인 경영난을 해결하지 못하게 되자 매각을 추진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적자와 체불 임금, 차량압류 문제 등으로 매각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양측 간 원만한 합의로 100% 고융승계를 이뤘다.

광주시 시내버스 운송조합 관계자는 "그동안 가장 힘들었던 이들은 아마도 삼양 버스 기사들이었을 것"이라며 "순천 교통 측과 삼양 버스 노조 측이 서로 회사의 절박한 사정을 인식하면서 매각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

됐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을로 운수 관계자는 "운전기사들이 55년 전통의 삼양 버스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 왔는데, 경영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돼 매우 아쉽다"며 "삼양 버스"라는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다른 것은 그대로인 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새출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역 시내버스 업체 10곳 중 규모가 두 번째인 삼양 버스는 1954년 설립허가를 받은 뒤 버스 5대로 출발, 55년 동안 광주시내 곳곳을 누비며 시민의 발 역할을 해온 지역 향토기업이었다. 현재 136대의 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373명이 종사하고 있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8일 조선대에서 열린 '1·8항쟁' 21주년 기념식에서 광주일보 신항락(왼쪽) 마케팅본부장이 1·8항쟁을 보도한 공로로 전호중 조선대 총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조선대 '1·8항쟁' 제21주년 기념식

### 본사 신항락 본부장 감사패

조선대학교가 8일 서석홀 4층 대강당에서 '1·8항쟁' 제21주년 기념식을 갖고, 항쟁을 널리 알리고 홍보한 언론인들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1·8항쟁은 조선대가 1987년 5월 1일 군부독재타도를 목표로 한 민주화운동과 함께 추진한 학원민주화운동이다.

조선대는 이날 1987년 5월 1일~

1988년 1월 8일까지 113일의 투쟁기간 동안 적극적인 취재활동과 언론 보도를 통해 1·8항쟁을 대내외에 널리 알린 신항락 광주일보 마케팅본부장, 홍건순 전 동아일보 사회부장 대우, 나경택 전 연합뉴스 광주전남지사장, 박용수 CBS TV본부장, 박준일 CBS광주방송 본부장, 이상일 국민일보 사회2부장 등 6명의 언론인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41분 해질 17시 38분 달돋이 15시 20분 달질 05시 40분

**눈길 사고 조심**  
구름이 많겠으며, 서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겠다.

광주	구름 많고 눈	-3/3℃
목포	구름 많고 눈	-2/2℃
여수	구름 조금	-1/5℃
완도	구름 많음	-1/3℃
구례	구름 많음	-6/4℃
해남	구름 많고 눈	-4/3℃
장흥	구름 많음	-4/3℃
고흥	구름 조금	-4/6℃
순천	구름 조금	-1/5℃
영광	구름 많고 눈	-5/11℃
진도	구름 많고 눈	-2/3℃
전주	구름 많음	-6/2℃
남원	구름 많음	-9/2℃
축산도	구름 많고 눈	-1/3℃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1.0~2.5m	목포 12:49	05:17
연안	북서~북	1.5~4.0m	18:22	18:22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0~2.5m	여수 07:50	01:04
연안	북서~북	1.5~4.0m	19:54	14:02

◇주간날씨 기상내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0(토)	11(일)	12(월)	13(화)	14(수)	15(목)
날씨						
최저/최고	-5/0	-6/2	-5/2	-4/3	-4/4	-4/4



휴게소 위생 점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8일 오전 장성 백양사 휴게소에서 설 대비 선물용 식품 등에 대한 특별 위생 점검을 실시했다. /위직량기자 jrvi@kwangju.co.kr

## 컵라면 90%·과자류 22% 학교서 퇴출

### 식약청, 월내 입법예고

정부의 '어린이 먹을거리 대책'에 따라 컵라면의 90%와 과자류의 약 22%가 학교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중광고와 학교 내 판매가 제한되는 '고열량·저영양식품 영양성분 기준안'을 마련했

으며, 이달 안으로 입안예고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해당되면 3월부터 학교 내 매점에서 판매할 수 없으며 어린이들이 TV를 시청하는 주요 시간대에는 TV광고가 제한된다.

식약청의 기준안을 적용해 유통 중

인 식품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컵라면의 90%와 탄산음료의 65%, 초콜렛의 37%가 광고·판매 제한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자류와 음료, 아이스크림 전체로는 평균 22%, 식사대용품은 평균 72%가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해당된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 ■ 미네르바 어떻게 체포됐나? PC방 아닌 집에서 글 올리다 '덜미'

검찰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체포함에 따라 최근 국내 경제를 뒤흔들던 '미네르바'의 정체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박모(30)씨는 지난해 3월부터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경제토론포방에 200여편 가량의 글을 올려 화제를 몰고 다녔지만 그의 정체는 베일에 싸여 세간의 관심을 더욱 끌었다.

'미네르바'가 주목받은 것은 지난해 7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가 한국에도 불뚱이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면서부터다.

이후 그는 지난해 8월 인터넷에 리먼브러더스의 부실화를 날카롭게 예견한 글을 '한국판 자옥의 목

시록'이라는 제목으로 올려 신드롬을 일으켰다. 또 '미네르바'의 글은 건당 평균 조회수 10만을 훌쩍 넘기는 등 화제의 중심에 올랐다.

하지만 '미네르바'의 정체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1주일 만에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9일 다음의 토론포방에 '미네르바'라는 필명에서 "정부가 29일 오후 2시30분 이후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라고 긴급 공문으로 전송했다"는 글이 오르자 곧바로 수사를 시작했다.

그가 인터넷에 올렸던 이전의 글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거나 근거 없는 비방, 또는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운 수사에 착수할 명분이 마땅치 않았지만 문제의 글은 명백히 허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포털사이트 다음을 운영하는 다음커뮤니케이션에 '미네르바'를 ID로 쓰는 회원이 가입 때 등록한 신상명세와 글을 올린 인터넷 주소(IP)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해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검찰은 IP추적을 통해 수사 착수 나흘만인 지난 2일께 미네르바의 신원을 알아냈고 '미네르바'로 파악된 박씨를 7일 오후 체포했다. 박씨는 IP를 추적하기 어려운 PC방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바람에 검찰의 수사망에 포착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새 대법관 후보 20명 안팎

김관재 광주고법원장·오세욱 광주지법원장 등

다음 달 임기를 마치는 고현철(62)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선정을 위한 후보자 추천 접수를 마감한 결과 김관재(55) 광주고법원장과 오세욱(54) 광주지법원장 등 20명 안팎이 추천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지난 5일부터 법조경력 15년 이상으로 40세 이상인 인물 가운데 대법관 제청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추천받았다.

현직 고위법관 중에는 사법연수원 8~10기 출신 법원장들에 변호사단체 등의 추천이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로 물망에 오르는 인사는 김 고법원장과 오 지법원장, 신영철(55) 서울중앙지법원장, 구육서 서울남부지법원장(54) 등이 다.

또 송진현(57) 서울행정법원장도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 검찰 고위 인사 임박

대검차장 명동성씨 등 거론

법무부는 8일 "검찰 간부들에게 용퇴 의사를 타진했고 일부는 명예롭게 용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밝히 올해 검찰 정기 인사에 속도가 붙게 됐다.

'검찰의 꽃'인 검사장 승진 인사의 폭과 '검찰 빅4'로 불리는 대검찰청 중수부장 및 공안부장,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에 누가 오를 지에 관심이 쏠린다.

검사장은 올해 사법시험 26회가

주로 승진됨에 따라 지난해 검사장을 달지 못한 25회 일부를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25회에서는 구분민(전남) 안산지청장 등이, 26회는 김현웅(전남) 인천지검 1차장 등이 꼽힌다.

검찰국장은 황희철 광주지검장(23회)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으며, 대검 차장에는 명동성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세계보청기, 세계 속에 우뚝서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계보청기

1588-8400 / 02-222-0100

02-2530-9496